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 1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 2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 3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 4 진리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 1 영광 스런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 2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 3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 4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 후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기도 담당

6/10(화)	6/11(수)	6/12(목)	6/13(금)	6/14(토)	6/16(월)
강협수 안수집사	조진권 재적안수집사	한상열 안수집사	김종진 안수집사	김두연 안수집사	이윤식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성숙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26장 다 함 께
기 도 한상열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2:5~9 인 도 자
찬 양 걱정 근심 나의 생각을 누르고 새벽찬양대
설 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이성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33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2:5~9>

5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
심이 아니니라 6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7)사람
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
하고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
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
을 맛보려 하심이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6월 12일(목)

크신 사랑과 긍휼로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게 하시고, 구별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더욱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세워 주신 새문안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직과 겸손과 검소한 삶을 살게 하시며,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제직부서에서 묵묵히 헌신을 다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나라 안팎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며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억압과 고통 중에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분단을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